

단순한 현존의 아름다움과 신비

| 에릭 그로스 | 심정요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추구란, 판단과 마찬가지로 욕망의 표현임을 저자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추구가 멈춘 곳에 현존의 아름다움이(편집자 주)



미 내사의 독자들이 흥미있게 읽어주리라는 내용이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추구하는 힘이 모두 의미가 없어지는 지점에 다다른다. 이 지점에서 추구자는 통로 단계를 거친 뒤 가만히 앉아서 숨을 고르며 둘러본다. 더 이상 아무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길이란 길은 모두 가 보았다. 수백, 수천 번도 넘게 전략이란 전략은 모두 시도해보았다. 그는 지쳤다. 온갖 영적 게임에 기진맥진해진 것이다.

그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예고의 짐을 벗어던지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했지만 영적 추구의 여정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예고만이 자신을 꼭 붙잡고 있다. 물러설 곳은 없다. 희망은 모두 절망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것이 진정한 마지막이다... 그런데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나 자신’에 나는 꿈쩍없이 갇혀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길옆에 서 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딱 막혔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현재에 존재하는 것 말고는... 그러나 그것은 가장 내키지 않는 일이다. 현재는 지루하다. 반면, 미래는 완전히 새롭고 향상된 ‘나’를 약속한다. 그러나 그 꿈은 사라졌다.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던 꿈은 모두 먼지와 같다. 꿈은 죽어버렸다. 우리도 죽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현존은 지속된다. 우리는 결코 원치 않지만, 반드시 지속되어야만 한다. 그때 무언가가 일어난다.

뭔가가 우리 앞에 열린다. 우리는 단순한 현존의 아름다움과 신비에 관해 수천 번을 읽었으나, 현존이 불현듯 와 닿지는 않았다. 현존은 지루하고 너무나 명백하며 단조롭다. 우리는 흥분을 열망한다. 화려한 불꽃과 이국적인 플루트 음악 소리를 원한다. 현존이 ‘우리에게’ 전

해주는 것이라고는 허리의 무지근한 통증, 끊임없이 똥똥거리는 벌레의 울음소리, 내가 해야만 하는 온갖 집안일의 무게뿐이다. 한 마디로 현존은 형편없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러나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단순히, 그리고 기꺼이 현존을 허용할 때 뭔가가 열린다. 느낌이 온다.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딱 부러지게 ‘이해’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추구란 판단과 마찬가지로 욕망의 표현일 뿐이다. 나는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갈망했다. 아바타, 깨어난 자가 되기를 갈망했다. 부처나 예수처럼 땅 위를 걸어 다니기를 갈망했다. 나는 약간은 조니 데프 같은 인물이 되기를 갈망했다. 깊이 있고, 신비하며 섹시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강력한 인물 말이다.

추구자로서, 내 관심은 온통 미래의 나에 가 있었다. 어느 날 새롭고 훌륭한 내가 탄생할 것이고, 개인적 자아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것이다. 존재의 핵심에서 느껴지는 개인의 죽음은 모두 활기찬 삶으로 피어날 것이다. 그렇다! 내게도 장차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제대로만 한다면, 영적 지침을 책에 나온 그대로 충실히 따른다면 말이다. 나는 자아의 가치를 몽땅 여기에 투자했다. 더 나은 자아가 되리라는 희망과 약속 없이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므로 나는, 추구자 입장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모두 평가했다. 이것은 나의 영적 여정을 발전시키는가? 아니면 저지하는가? 모든 것을 분석해야 하므로 늘 다소 긴장한 상태였다. 이 과제를 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두려운 옛 자아로 되돌아갈 테니까. 나는 이완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이런 류의 무거운 짐을 어깨 위에너지고서, 그 누가

이완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추구자의 욕망이었다. 그러나 <거짓으로부터의 해방(Liberation from the Lie)>을 읽고 나니 이 모든 것에서 뭔가가 더 보이기 시작했다. 추구자의 욕망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자아에 대한 감각, 내 개인적인 정체성보다도 훨씬 근본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판단이었다. 어떤 것을 욕망하기 전에 나는 이미 지금 이대로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본연의 나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판단 없이는 결코 깨어난 내가 되려는 욕망이 생겨날 수가 없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여정은 주로 이러한 판단이 외부로 표출된 결과인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갔다. 그러자 이 같은 판단은 두려움의 산물이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아야말로 두려움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근원적인 트라우마의 영향력과 그로 인한 고통 때문에 구도의 길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추구자는 욕망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욕망은 자기비하에 의해 생겨났고, 욕망과 판단은 둘 다 두려움에 의해 강화되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여정의 끝에 다다랐다. 나는 이 길을 너무나 오랫동안 여행했고, 지금은 존재만이 남아있으며, 이제 내면에서 뭔가가 용솨음치고 있다.

결국 외부 세계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강박적 욕망에서 벗어나 존재만 남은 지금,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단순한 기쁨이라는 것을 안다. 바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다. 존재는 살아있다. 그전에는 모든 욕망이 나 자신의 바깥에 있는 외부의 것을 향해 있었다. 내가 불완전했기에 내게 없는 것을 추구했다. 내가 부족했다. 그러나 지금은 욕망 자체가 변형되어버렸다. 욕망은 행복과 모든 것을 포용하

는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마법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지금 그냥 일어나고 있다. 추구하는 자는 말 그대로 죽어야 했다. 이것은 누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끝) 

〈참조〉

방금 상담을 끝마쳤는데, 상담하던 중 뭔가를 깨달았다.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겠다.

깨달음 전: ‘나’라는 이야기는 아주 거대하다. 현존과는 거의 무관하다. 현존은 존재에 필수적이기는 하나 중요도가 낮아 고려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깨달음 후: 모든 것이 현존이다. 나? 그게 뭐지?

깨달음 전



깨달음 후



- 이 글은 'Liberation from the Lie'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에릭 그로스**(Eric Gross) | 통계전문가, 크리슈나무르티의 《자성의 깨우침》을 읽고 자신의 근본을 찾는 길에 들어섬. 그러다 그 열망 역시 다른 모든 욕망과 차이 없음을 알고 내려놓음. 동시에 '거짓된 자아'를 통찰하고 자유로워짐. 홈페이지 liberationfromthelie.com

역자 | **심정요** | 지금여기 번역위원